화순 동·서 균형개발 나섰다

▼동부권

2010년까지 800억원 투입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

체류형 휴양 관광지로 개발

▼서부권

2013년까지 6,000억원 투입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전남 제1의 전원 휴양도시로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화순군의 '비전1030' 추진 전략이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에 맞는 BT산업과 CT산업을 연계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서와 북면, 동복, 남면, 한천을 중심으로 한 화순 동부권에는 상수원 보호지구라는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 농산물재배단지를 규모화·집단화시키고 관광 상품으로 특화시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또 화순읍을 중심으로 동면과 이양, 능주, 춘양, 도암, 도곡면 등 서부권에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역사·문화 중심의 전원형 휴양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동부권에는 잠업시범단지와 산채나물, 한약초 재배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집중 지원해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고 고려인삼 시원지인 모후산 산죽산양삼을 대표 특산물로 집중 육성한다.

사업비는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2010년까지 3년간 80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10년에는 화순온천, 백아산 휴양림과 모후산(母后山)생태테마파크를 연계한 체류형 휴양 관광지가 들어서 전남 중부내륙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부권에는 화순전남대학병원과 생물산업단지가 연계된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특히 세계적 응용기술연구센터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화순에 유치함으로써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부권에는 전원택지 개발과 능주목 복원,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 도곡쌍옥농공단지 개발, 신성리 골프장(신성CC 18홀) 조성, 지석천의 자연형 하천 개발 등 오는 2013년까지 6천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화순 서부권은 전남 제 1의 전원형 휴양도시로 꾸며진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보건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 시대를 열어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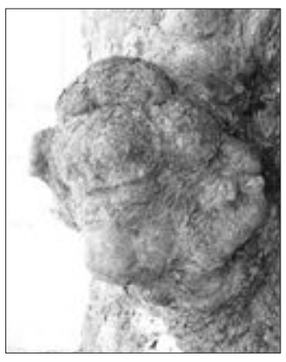
/화순=조성수기자 css@

어! 느티나무가 달마상 닮았네

강진 군동면 화방마을

10여년 전부터 불거져

마을의 평온·만복 기원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입구에 달마상을 닮은 느티나무가 있어 화제다. 어림잡아 수령 400년 이상 된 이 느티나무 둘레는 어른 2명이 양팔로 휘감아도 부족할 정도로 굵고 높이도 20여m를 넘는다. 〈사진〉

마을의 수호신 같은 이 나무가 10여년전부터 아랫부분이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모양이 달마상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시원스럽게 벗겨진 머리며 웃음을 머금고 있는 조그마한 눈, 주먹만한 코, 툭 불거져 나온 배 등이 달마상을 쏙 빼다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미 입소문을 타고 나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며 코를 쓰다듬고 배도 만져보며 만복을 기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나무 스스로 상처부위를 치유하는 과정이나 영양분이 이상축적돼 생길 수 있는 일종의 옹이로 추정하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함평 골프고 '그린 관리 실습장' 준공 2개월도 안돼 양잔디 고사

함평 골프고 학생들 연습용으로 교내에 설치된 양잔디가 고사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함평 골프고는 전남도 교육청의 특성화고 지원 시책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6월 초 교내에 80여㎡규모의 '그린관리 실습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준공 2개월도 되지 않아 관리 소홀로 실습장내 양잔디가 고사했다.

학교 측은 4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고사한 양잔디를 방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연습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함평골프고 관계자는 "이번 여름에 온도·습도가 맞지않아 양잔디가 고사한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전문가들은 "양잔디의 경우 토종잔디보다 물을 3배 이상 주어야 하는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해남 울돌목 뜬 거북선 '명량호' 1597년 가을 왜군을 대파했던 해남군 울돌목에 거북선이 떴다. 지난해 전남개발공사에서 건조한 거북선 형태의 유람선인 '명량호'는 선체 길이 49m에 무게 368t으로 3D 입체 영상관과 개폐식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8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명량호는 정식 운항에 앞서 오는 29일 독도로 출항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농촌사랑' 글로 써 보세요

전남농업박물관 내달 17일 학생 글짓기 대회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이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경내에서 전남지역 소재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옛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제 4회 농업·농촌사랑 학생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글짓기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잊혀져가는 전통 농경문화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우수학생 20명에게는 전남도지사 상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462-2796~9)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전남관광, 숙박·교통시설 '열악'

관광객 1만명 당 객실 수 0.19 … 경남·북, 전북지역 보다 경쟁력 떨어져

전남은 관광객 수와 자원은 풍부하나 숙박시설과 교통편의시설, 도시관광자원 면에서는 경남, 경북, 전북 등 인근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전남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과 연계하는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발전연구원 곽행구 책임연구위원은 17일 연구원 정기간행물인 '전남비전21'에 특집 주제문으로 실은 '전남관광행태 변화분석과 대응전략'에서 경북과 경남, 전북 3곳을 선정해 면적당 관광객 수와 교통편의시설 등을 전남과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남은 ㎢당 관광객 수에서 5천412명으로 경남(5122명)과는 비슷했으나 경북(2천462명), 전북(3천458명)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았다.

반면 관광객 1만명당 객실 수에서는 전남이 0.19에 그친데 비해 경북은 0.94, 경남 0.36, 전북 0.35로 전남지역 숙박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객 1만명당 교통편의시설 수에서도 경북(0.033), 전북(0.022), 경남(0.019)과 비교해 전남은 0.016으로 가장 낮았다.

곽 연구원은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개선과 확충을 통해 전남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자원의 차별화와 자원간 연계성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선임연구위원은 '전남고대유산의 체계적 개발과 관광자원화 전략'이란 주제문에서 "전남지역에 산재한 세계적 고대유산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영산강 일대에 마한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전남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희종기자 chae@

記者노트

나주배, 정부수매 시급하다

최 승 렬

〈사회 2부 나주주재〉

효자작목이었던 '나주배'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마저 건질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한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판로 확보가 안돼 애써 수확한 배를 썩힐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은 지금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매년 나주지역에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안겼던 '나주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예년에 비해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배 재배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나주시 등 관계 기관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야적시위를 계획하는 등 농정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다. 올해를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원년'으로 선포해 오히려 성장촉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운 나주시의 정책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도가 13도 이상을 웃도는 등 어느해보다 상품성 좋은 배가 생산됐는데도 빠른 추석으로 미숙과가 많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역시 소비감소를 부채질 했다.

이제라도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수매가 시급한 실정이다. 나주시 역시 중앙정부와 별도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물량을 조속히 소화해야 한다.

나주배의 가격 파동은 4~5년 주기로 반복돼 왔으나 근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태풍이라도 불어야 과잉생산된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다.

가격 폭락에 대비해 배값 안정기금을 적립하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수령이 오래된 배나무를 베어내는 '과원정비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배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일까. /srchoi@